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월드비전 아동의 목소리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방관자 효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핵심제안]**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방관 및 방조'에 대한 참여형 활동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 효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2016~2018년 학교폭력 가해자 재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2,108건이었던 가해 학생 재발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에는 3,25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2,672건에 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올라간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8년 3만2,632건으로, 2014년(1만9,521건)보다 67% 증가했습니다.<sup>1)</sup>

또한 2020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가운데 '방관자'의 비율은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 했다'는 비율은 2017년 20.3%였던 것에서 2020년 34.6%로 증가하였고,<sup>1)</sup> 반면 '말렸다'는 비율은 2017년 25.5%에서 2020년에는 15.9%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위에 신고했다는 비율 역시 2017년 17.6%에서, 2020년에는 11.2%로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sup>2)</sup>

교육부에서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해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학교폭력 재발 건수와 방관 비율을 볼 때,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계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벤치마킹했던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OBPP)처럼 우리나라도 학교폭력 방관자를 적극적인 행동자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 정규과정에서부터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관자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한 학생은 비록 자신이 직접 가해 행동을 하진 않았더라도 가해 학생의 행동을 묵인하고 자극하는 데 영향을 주어 '선동적인 청중'이 될 수 있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코 학교폭력의 문

1)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0987.html](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0987.html)

조선에듀 이진호 기자, 2020.10.06 10:20

2)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1. 01. 20

제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2021년 6월과 10월, 경남 창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부추기거나 구경하고 영상을 찍어 유포한 학생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sup>3)</sup> 이 사례는 폭력 방관 및 방조, 2차 가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를 보여줍니다.

이는 피해 학생 및 가족, 주변인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주변에서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신고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신고 의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방관'에 대한 참여형 활동 및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 효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7998>, 2021.10.24. (09:03) KBS 뉴스

